

## <나, 성장 그리고 책과 도서관>

배 윤 경

어릴 적부터 집안 한편에 그득히 쌓인 책과 함께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나 역시 책과 친해지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 속의 책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라카미 하루키를 빼놓을 수가 없다. 서재에 꽂혀있던 ‘상실의 시대’에 흠린 듯이 손을 뻗고 마약 같은 문체에 빠져들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는 어린 나에게 폭죽이 터지듯 펑 하며 운명처럼 다가왔다. 중학생의 나는 코 묻은 용돈을 조금씩 모아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이 고뇌하며 성장하는 만큼, 그 때의 나는 주인공과 함께 자랐고 고뇌했으며, 함께 울었다. 마음을 울리는 말들은 내 가슴에 박히듯 들어왔고, 내가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성에 젖을 수 있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어느 작가가 그럴듯 자신만의 문체로 담담하게, 그리고 때론 선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며, 지금도 내 서재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광적인 팬이었다. 그가 책 속에서 언급했던 음악을 찾아 듣고, 유지선에 대해 알아보며, 그의 수필집 역시 꾸준하게 읽었다.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자 잔잔한 일본 특유의 감성과 우회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체에 지겨움을 느꼈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직설적인 문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뒤로 무라카미 하루키만큼 나를 애타게 하고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는 작가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책 모두를 뒤지기 시작했다.

집 서재에 있던 ‘상실의 시대’가 나를 불렀듯, 도서관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 분 명 나를 찾아주는, 내가 원하는 책이 있을 것 이라 생각했다. 어렸을 적엔 아빠와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을 돌아다녔다. 아빠는 학습 분위기를 나 스스로 익혀 독서에 취미를 가지길 원하셨고, 나는 쏟아지는 책 냄새에 파묻히고 싶었다. 혼자 다닐 수 없었던 어린 나는 아빠와 차를 타고 먼 도서관까지 가서 항상 두 손에 책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훗날 집 근처 도서관이 아닌 일부러 먼 도서관으로 간 이유를 여쭙보자, 아빠는 먼 곳에서 책을 빌려오면 그 시간과 열정이 아까워서라도 책을 모두 다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독서에 습관을 들였다.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나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았다. 알다시피 인천은 ‘책의 도시’, 발길이 닿는 곳 마다 도서관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학교가 끝나면 천천히 도서관으로 걸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책은 빌려와서 읽었다. 때론 채광이 드는 쪽에 앉아 책을 읽다가 햇살을 즐기는 병아리마냥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던 도서관에서의 기억들이 내게는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방 속엔 늘 공부 외의 목적의 책이 항상 한 권씩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것은 성인이 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이다.

사실 사람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단 ‘공부’와 처음 연관을 짓는다. 하지만 책, 공부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대학생 때의 도서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문화생활을 즐기며, 약간의 일탈을 즐겼던 곳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다. 나의 모교의 도서관은 객관적으로 말해도 꽤나 괜찮은 도서관이다. 강의 시간이 붕 떠버렸을 때에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도서관으로 가 영화를 감상하기도 했다. 수작이라고 말하는 명작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고전 명작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찌나 재미있던지 나만의 ‘무비데이’가 생겼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니기도 했다.

게다가 시험기간이면 바글바글 학생들이 모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릴 때 빵에 와 닿는 차가운 음료수 느낌에 놀라 깨기도 하며, 과 동기들, 선배들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달려 나가 편의점을 한바탕 휩쓸기도 했다. 당시에는 서로가 같이 공부하며 그 처지를 비관했지만, 지금에서야 보니 아, 그 얼마나 즐거운 순간인가. 왼쪽에는 전공서적이, 오른쪽에는 함께 어깨를 부딪치며 컵라면 하나를 해치울 수 있는 전우가 곁에 있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와, 이걸 00학번 선배가 주신 족보야, 서로 정보를 나누고 킬킬거리는 그 때의 내가 그림다.

도서관 하니 또 하나 생각나는 작은 일탈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있는 사랑의 쪽지. 화장실에 다녀와야지 하며 자리를 비운 5분의 그 시간, 누군가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자꾸만 눈에 밝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다가선다. 가지런히 접은 쪽지 한 장과 음료수가 수줍게도 놓여진다. 졸음을 쫓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찬기가 남아 있는 음료수를 놓음과 동시에,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은 책상 위 똑똑 떨어져있지 않았던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보이는 음료수에 주위를 훑 훑 돌아보며 붉어진 빵을 감출 수가 없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나갈 때 나를 불러 세우는 낮은 목소리. 이렇듯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모든 추억들이 얽혀있다. 아마 그에게도 이 기억은 잊지 못할 기억이지 않을까?

지금도 도서관은 나만의 피난처이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마다 도서관을 찾는 나에게 도서관은 휴식처이자 피난처인 것이다. 일종의 무의식적인 회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도서관에 들어가면서부터 푸근한 느낌과 함께 거대한 책장이 주는 위압감이 나를 황홀하게 만든다. 책에 파묻혀 죽고 싶다, 라는 말은 나에게도 절절히 와 닿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직장인이 된 지금, 나에게 행운이라 함은 직장 내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다. 매일 점심식사 후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다. 때론 한 손엔 책 한 권, 다른 손엔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옥상으로 올라가 광합성을 하는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받으며 독서를 한다. 이때의 나는 마치 신선과도 같이 구름을 걷는 기분이며 행복의 절정을 맛본다.

어렸을 적, 엄마는 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셨다. 그 옆에서 아빠는 당시 흥미가 있던 일본어를 공부하셨고 나는 그 옆에 바닥에 모로 누워 담요를 허리에 덮는지 마는지 걸친 채 동화책을 읽었다. 어릴 적 나의 주말의 기억은 가족들과 함께 책에 둘러싸여 있었다. 야간자율학습시간, 내 문제집 밑에는 늘 소설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감독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책을 읽어나갔고 공부는 뒷전이였다. 그래도 그 덕에 언어와 외국어영역만큼은 늘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학참고서가 날 노려봤던 건 기분 탓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지금도 자위한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듯, 나도 훗날의 나의 자식에겐 도서관, 그리고 책이 주는 기쁨을 선물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자식이 내가 그랬듯, 도서관과 사랑에 빠져 그 찬란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책과 함께 황홀경에 빠질 것이다.